

상권 르네상스 '순항중'

익산시, 정부 공모 선정 80억 확보... 상인들 참여율 높아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정부 공모 선정으로 채택된 영등 상권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상권 르네상스'는 영등 상권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31일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익산 데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구역과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영등상권 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경과 및 상권활성화 구역, 영등상권 활성화 위한 세부 계획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영등 2동 810개 점포, 13만18천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상인과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을 목표로 채택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전문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세부사업계획 고도화 등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3월 초 중기부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주민공감 광고를 거쳐 중기부 등 관련 기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13만18천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상인과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을 목표로 채택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전문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세부사업계획 고도화 등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3월 초 중기부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주민공감 광고를 거쳐 중기부 등 관련 기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지난 31일 (주)사이드홀딩스 대표 소재영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 체결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날개 달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이드홀딩스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는 지난 31일 (주)사이드홀딩스(대표 소재영)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사이드홀딩스는 2021년에 설립한 커피 제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외부지역에 총 1만16,496㎡(4,990평) 부지를 마련하여 금년 9월에 착공, '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총 600억여 원의 투자금액과 80여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여 원두(가루, 입자)커피, 캡슐 등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주)사이드홀딩스와의 투자약해각서 체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두 번째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 유입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함으로써 취업환경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을 위한 9개 기업지원 시설들이 집적화되면서 유통부터 마케팅은 물론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추가로 3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국내·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익산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주)사이드홀딩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K푸드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위해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북부권 행복주택 건설, '정주여건 개선'

3산단 인근 200세대 건설

익산 북부권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3산단 인근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은 물론 신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시켜줄 전망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동수행자인 LH와 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익산 북부권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 주택' 건립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3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4산단 삼기 및 남산농공단지, 개별입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인근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단형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북부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상입부지 분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제3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4산단 삼기 및 남산농공단지, 개별입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인근 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단형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북부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상입부지 분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확진자 대면 진료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 운영한다.

시는 병원급은 지난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아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면 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재택 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대 지정 운영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로 수사랑 병원, 온누리 아동병원, 익산병원 등 3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이어 한열중앙병원, 익산제일병원, 우석요양병원, 미소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동산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등 10개소로 확대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북부권 확진자들이 가까운 대면 외래진료센터가 없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한

열중앙병원이 30일부터 3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북부권 확진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4일부터 모아산부인과에서는 확진 산모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운영 예정이다. 확진 산모 전담의료기관이 없어 타시군 병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으나 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진료 및 투약, 초음파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열중앙병원이 30일부터 3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북부권 확진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4일부터 모아산부인과에서는 확진 산모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운영 예정이다. 확진 산모 전담의료기관이 없어 타시군 병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으나 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진료 및 투약, 초음파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대응 대책 회의

군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농반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경영체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리 수확철인 5~6월 중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소각행위는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민원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부서 회의에서는 농촌동(산북동, 소룡동, 내원동, 수송동 등)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라데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진행하고 이들 농촌동의 보라데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

를 지원하자는 방안과 5월에 종료되는 환경지킴이 근로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시는 농반기 소각행위 금지와 이에 따른 파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보라데 환원사업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이 해마다 지속되는 추세이며, 군산시는 소각행위가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국립회기질환센터 유치 '청신호'

익산시가 글로벌 회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립회귀질환센터 유치에 한발 더 다가갔다.

시는 지난해 4월 원광대학교와 체결한 회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회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 31일 '글로벌 회귀질환 네트워크 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시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전북도 관계자 등 내외인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연구소 개소를 통해 회귀질환자들에게 한·양방 통합 치료 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료기관과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회귀질환자들의 고통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재산 주요관리부서의 공유재산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실태조사 기법, 사용수익허가 및 현장위주의 조사와 재산 상태에 따른 유형별 조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무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가 대민행정을 위해 소유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없도록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활용가능 공유재산을 발굴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유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던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